

일본-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작성자 : 권을 동서남아팀장/부연구위원

【ykwon@kiep.go.kr, ☎ 3460-1060】

主要內容

- 고이즈미 총리는 ASEAN 10개국 정상과 12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일-ASEAN 특별정상회담'을 갖고, 도쿄선언과 함께 120개항에 달하는 을 채택함.
 - 일본의 ASEAN 중시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ASEAN 정상회담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보장, 개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강화를 명시한 도쿄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일-ASEAN간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구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유보해 왔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전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ASEAN과의 안보협력 및 상호안전보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중국, 인도에 이어 일본이 동남아우호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아시아 역내 협력구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정부도 TAC 가입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각각 양자간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FTA 추진노력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ASEAN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으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임.

1. 주요내용

- 일본은 ASEAN 10개국 정상을 동경으로 초청하여 12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서 특별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ASEAN 중시정책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채택함.
 - 도쿄선언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로 향한 협력을 명시하고, 정치·안보, 경제, 개발, 사회·문화 등의 각분야에서 광범위한 연대강화를 표명함으로써 일-ASEAN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협력지침을 마련
-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일-ASEAN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하고, 120개항에 달하는 실천방안을 제시
 - 정치·안보 분야의 테러·해적행위, ASEAN 경제통합, 경제경쟁력 강화 등 국경을 넘어선 문제에 대한 대처를 중점분야로 선정함.
 - 특히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연대협정과 함께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인력의 이동 촉진, 아세안내 개발 격차 해소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1만 명의 아세안 유학생들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3년간 ASEAN 인재육성사업에 15억 달러를 지원키로 함.
 - 한편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를 위한 ASEAN 지역개발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하고, 일본은 메콩지역 개발에 향후 3년간 15억 달러를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이번 일-ASEAN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일본이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에 전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ASEAN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임.

- TAC는 회원국간 내정불간섭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규정한 조약으로 1998년부터 아세안 이외의 국가도 가입할 수 있게 됨.
 - 일본은 ‘상호 불가침’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TAC가 미·일 안보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그 동안 가입을 보류했음.
 -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인도가 지난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TAC에 가입하기로 서명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TAC에 가입키로 방침을 전환함.
 - TAC에 현재 아세안 회원국과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등이 가입했고 일본 역시 가입할 예정이나 한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12월 11일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양자간 FTA 추진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 ASEAN과의 전체 교섭과는 별도로 2004년부터 3개국과 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우선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일본의 FTA 추진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 일-ASEAN 정상회담의 개최배경

-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ASEAN의 위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분업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 그동안 일본은 동아시아분업구조에서 일본이 선두에 서고 다음으로 NIEs, ASEAN, 중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아시아 역내경제는 안행형태의 産業發展 패턴(wild geese flying pattern)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해 왔음.
-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국면에 진입하면서 일본은 그동안 국내에 집중시켜왔던 ‘일본형 생산시스템’을 동남아에 본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생산기지 이전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이르렀음.

- 이를 위해 기존의 엔차관 중심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통산성을 중심으로 JETRO, 국제협력은행(JBIC), JIC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일본은 동남아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지 시장축소, 환리스크 증대, 자금조달의 곤란이라는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를 최적 생산거점으로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전격 제의하면서 ASEAN을 매개로 한 지역통합논의에서 중·일간의 경쟁이 본격화됨.
- WTO 가입이후 본격적으로 개방경제체제에 진입한 중국은 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전격 합의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된 것임.
 -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주룽지 前총리에 의해서 전격 제의된 중·ASEAN 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6차 ASEAN+3 정상회담을 통해 중·ASEAN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공식 합의하게 되었음.
 - 2010년을 목표로 한 합의였지만, 관심을 끄는 것은 先자유화조치로서 양측이 합의한 품목의 교역을 내년부터 자유화하고, ASEAN측의 관심사항인 농업부문 개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이와 같이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자 일본은 향후 본격화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속에서 동남아와 경제통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중임.

- 그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체결로서 1999년 12월 일본의 오부치 전총리와 고척동 총리와의 합의로 양국 FTA 공동연구가 추진되어 왔으나 중·ASEAN FTA 추진에 대응코자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함.²⁾
 - 그러나 2002년 1월 체결된 일본과 싱가포르간의 협정은 공식적 명칭이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으로서 농업을 제외함.
 - 기존의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물론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방송, 관광 등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과 인적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음.
-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동남아 국가들을 차례로 순방하여 일본의 ASEAN 중시정책을 표명함.
- 고이즈미 총리는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여 솔직한 파트너로서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간다’는 기본 이념 방침을 표명한 바 있고, 2003년을 일·ASEAN 교류의 해로 정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옴.
 - 이를 계기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고, 이번 ASEAN 정상들을 동경에 초청하여 「日·ASEAN 특별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ASEAN과의 경제연대 강화를 모색하게 된 것임.
- 특히 일본은 지난 10월 8일 발리에서 개최된 일-ASEAN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연대협정(framework for Comprehensive Partnership: CEP)에 서명하고 앞으로 10년내 FTA 체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3. 일-ASEAN FTA 논의 동향

-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12월 11일 그동안 경제연대협정 체결을 검토해 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회담을 갖고, 2004년 중에 양자간 FTA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합의함.

2) 2000년 9월 FTA협정 추진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고척동 총리와 모리총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공식합의하여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초 협정체결은 2003년으로 예상되어 왔음.

- 지난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일본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ASEAN 전체와 2012년 FTA 추진을 목표로 2005년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선 3개국과 양자간 협상을 2004년중에 마무리짓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에 합의함으로써 ASEAN 전체와의 교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이번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ASEAN에 대한 중시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던 FTA 추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

- 그동안 일본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농업을 포함한 일부 광공업 제품의 관세철폐에 부담을 느끼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경제연대협정(EPA)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그러나 최근 WTO 협상이 지연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FTA 추진노력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특히 2003년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농산품 문제로 결렬되면서 대내외적인 우려가 높아지자 ASEAN과의 교섭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ASEAN간의 협상에 있어서 태국의 쌀과 닭고기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 필리핀의 간호사 등 인력 수용, 말레이시아의 베니어합판 수입문제와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 시기연장 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 일본과 ASEAN은 무역과 투자 및 개발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경제협력파트너로서 그동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과 FTA 체결시 3개국에 미치는 GDP 증가효과는 태국이 20.1%, 필리핀 1.7~3.0, 말레이시아 5.1%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태국이 유난히 높게 나타

난 것은 금융위기 이전 테이터가 포함되어 증가율이 높게 나왔음).

- 반면에 일본에게는 태국이 0.2%, 필리핀 0.01~0.03%, 말레이시아 0.1%의 G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궁극적으로 ASEAN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개방을 해야 하고 농업 등 일본 국내산업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임.

□ FTA 추진시 양측에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일본이 아세안 무역의 20.2%를 차지하고 아세안 역시 일본 무역의 14.2%를 차지하여 미국에 이어 서로에게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임(표 1 참조).

- 또한 일본은 DAC(개발원조위원회) 멤버로서 對아세안 개발 원조의 60%를 차지하고 아세안에 11조 2천억 엔에 달하는 투자를 해왔음(표 2 참조).
- 일본의 쌍무적 ODA(정부개발원조)의 對아세안 원조는 28.3%를 차지하고 2002년 일본 관광객은 370만 명으로 아세안 총 관광객의 15%에 달하고 있음.

<표 1> 일본의 對ASEAN 교역량 추이

	일본의 무역액			
	총 교역		ASEAN과의 교역	
	교역량 (억 엔)	비율 (%)	교역량 (억 엔)	비율 (%)
1990	753,121	100.0	90,175	12.0
1995	730,796	100.0	118,544	16.2
1996	827,247	100.0	137,102	16.6
1997	918,942	100.0	145,289	15.8
1998	872,987	100.0	112,831	12.9
1999	828,156	100.0	114,320	13.8
2000	925,926	100.0	138,050	14.9
2001	913,948	100.0	131,963	14.4
2002	943,365	100.0	134,348	14.2

자료: 일본관세협회

<표 2> 일본의 對ASEAN 직접 투자액 추이

	총 투자액		對ASEAN 투자액	
	투자 건수	투자액(억 엔)	투자 건수	투자액(억 엔)
1993	3,488	41,514	501	3,548
1994	2,478	42,808	463	5,306
1995	2,863	49,568	623	5,363
1996	2,501	54,094	672	7,201
1997	2,489	66,229	613	9,613
1998	1,597	52,169	282	5,158
1999	1,713	74,390	273	4,404
2000	1,684	53,690	179	2,751
2001	1,753	39,548	183	4,264
2002	2,144	44,175	164	2,709

자료: 일본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Statistics Monthly*, No.608 2002. 12.

4. 정책적 시사점

- 이번 동경에서 개최된 일-ASEAN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ASEAN 중시정책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일본과 ASEAN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특히 일본이 TAC에 가입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관계는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정치·안보 협력 구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일본-ASEAN 행동계획’이 이행되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주창한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인도가 TAC에 가입한 이후, 그동안 미국을 의식해 유보해 왔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TAC 가입을 통해 ASEAN과의 관계를 기존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차원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ASEAN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으로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지난 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ASEAN을 축으로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 등 주변국가가 FTA 등 경협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협력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ASEAN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경제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ASEAN과의 FTA 추진은 물론 TAC 가입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ASEAN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